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유통물류과 박영삼 과장(2110-5141), 안응수 사무관(5144)

유통산업, 갈등에서 상생으로

- 대·중소유통업계, "유통산업발전협의체" 발족키로
- 대형 유통업계 출점자제, 자율휴무 등 업계 현안사항 해결의 場으로 활용

□ 대·중소 유통업계는 10.22(월) 12:30 한국기술센터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에 대해 합의하였음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합의문

우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대형유통업계와 중소유통업계는 유통산업의 전반적 발전방안 및 상생협력을 논의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통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2012. 11. 15일까지 발족시키기로 한다.

-. 대형유통업계는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 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협의키로 한다.

2012. 10. 22.

	이마트 최병렬 사장
전국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	롯데마트 노병용 사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	홈플러스 왕효석 사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이승한 회장	GS리테일 홍재모 대표
	롯데슈퍼 소진세 대표이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심재일 대표이사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

□ 2012. 7월부터 지경부 중재로 유통산업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금번 회의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안한 유통산업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해 대중소유통업계 대표들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임

* 이승한 홈플러스회장,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임박한 해외일정까지 취소, 또는 연기했던 것으로 알려 졌음.

○ 대중소유통업계는 금년 11월 이후 동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형마트, SSM의 출점 자제, 자율휴무 등 최근 현안사항에 대한 자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음.

□ 지식경제부 홍석우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의 유통산업 내부의 반목과 갈등을 유통산업 내부에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 자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 나가면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주문하였음

○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이러한 상호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그간 유통산업의 내부적 갈등을 앞으로는 합의와 협력을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과 상생협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